

전남도 6년 연속 일자리 우수·4조9000억 투자유치 큰 성과

일자리·투자유치 총결산 한마당
일자리 우수기업 20곳 인증서
신안 해상풍력단지조성 발판 마련
여수허브터미널 투자 등 245곳 협약

전남도가 22일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갖고, 올해 일자리 및 투자유치 성과를 총결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김종식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정종순 장흥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투자유치 유공자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행사장과 수상 시·군 및 기업을 연결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상호 소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도내 20개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일자리 및 투자유치 우수 시·군 13곳을 비롯 일자리 관련 기관, 투자유치 기업대표 등 공로자를 시상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은 송원엔지니어링과 제이케이중공업, 승진엔지니어링, 두원산업,

삼미메탈, 우동, 세라코, 쿠로엔시스, 일성산업, 중앙이앤씨, 금성이앤씨, 굿농산, 바이오코프, 푸드원, 보성포리테크, 제이엔피, 로우카본, 원광전력, 한사랑에프에스, 누리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일자리 우수 시·군은 대상에 목포시, 최우수상 나주시·영광군, 우수상 해남군·영암군, 장려상으로 고흥군·장흥군이 선정됐다. 투자유치 우수 시·군은 최우수상에 광양시·영광군·장흥군, 우수상 목포시·담양군·진도군, 장려상으로는 여수시·완도군·곡성군이 뽑혔다.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와 투자유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6년 연속 전국 일자리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돼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인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4.1GW 컨소시엄 구성, 상생협약 체결,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정부 대표 일자리사업인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서 3년간 사업량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투자유치에서는 여수 모도 LNG 허브터미널, 반도체 세정용 과산화수소 생산공장 등 총 245개 기업과 4조90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고 8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미래형 첨단기업 유치 기반과 타 시도 우위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인센티브 한도를 기존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0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 뒤 시장·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자리 우수 시·군 대상 목포시, 최우수상 나주시·영광군, 김영록 전남도지사, 투자유치 우수 시·군 최우수상 광양시·장흥군.

100억원에서 앞으로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우행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해 일자리와 투자유치를 위해 고생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전남을 만

들기 위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혁신과 성장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시재생뉴딜 공모 '전국 최다' 선정

14곳...국비 1041억 확보

전남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올해 전국 최다인 14곳이 선정되며 국비 1041억원을 확보했다. 올 1월부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도내 쇠퇴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올 상반기 중앙공모 인정사업 3곳과 광역공모 일반근린형 6곳 등 9곳, 하반기에는 중앙공모 인정사업 5곳 등이다. 이 사업들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41억 원을 비롯 지방비 644억원, 공기업 681억원, 연관사업 2268억원 등 총 4634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3차 공모에서도 전국 47곳 중 5곳을 차지해 국비 413억원을 확보했다. 총괄사업관리자사업으로는 여수시 '여수의 자존심 F.I.E.X. 국동'과 구례군 '삼대삼미와 함께 살아가는 전원도시재생 구례'가 뽑혔다. 인정사업으로는 순천시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 그라운드 조성'과 나주시 '금천면 이화공동체의 달빛 도시재생 프로젝트', 광양시 '광영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등이 선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13억원, 지방비 275억원, 부처연계 등 공기업투자 681억원 등 총 1369억원이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투입된다. 특히 구례군의 사업은 지난 여름 섬진강 제방붕괴로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5일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침수주택 집수리 지원(145호)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LH의 행복주택(104호) 신축,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거점시설 구축 등에 537억원을 들여 수해지역 활력 회복을 모색한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내년 도시재생 공모에서도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맞춤형 공모 컨설팅을 강화하고 LH 등 공기업 참여도 확대 하겠다"며 "진행 중인 36개의 사업도 조기 완공해 도시기능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까지 도내 20개 시·군 65곳에서 7390억원이 선정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공간조성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방지 참신한 시책 발굴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

전남도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청년 유입·정착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인구감소로 발생한 빈집 등 유휴공간을 거점시설로 재생산하고 시·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시행했으며, 창의적인 청년 지원 신규시책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로, 접수된 시·군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8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업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남도는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인구문제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우수 사업은 시·군에 전파해 전라남도 인구 브랜드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시·군 공모를 실시해왔으며, 광양 '청년 취업지원 울인원'을 비롯 순천 '청년 맥가이버 육상', 완도 '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등 35개의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돼지농가 '피해보전직불금' 57억 연내 지급

전남도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돼지사육 농가를 돕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돼지 사육 두수 및 수입량 증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내 돼지사육 농가 296호(107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57억원을 연내 지급하기

로 했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6321원으로, 지급 상한액의 경우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원은 '2020년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제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6월 농축산식품부에서 '돼지고기'를 사업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정·고시

함에 따라 7월 양돈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70억원을 들여 '2020년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금'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돼지고기 폐업지원금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 1775원이며,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시·군에서 폐업 확인을 거친 뒤 내년 지급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청 주차장 내년 유료화...90분 무료 후 10분당 300원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주차장 이용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 1시간 30분은 무료이며 이를 초과하면 10분마다 300원, 1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광주시는 7억원을 들여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달까지 시험 운영으로 점검을 마쳤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변 상가 이용자, 직장인들의 밤샘 또는 장기 주차를 억제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일 등에는 개방되니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